

도서관학 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연구

—주제 전문사서 양성 방안을 중심으로—

윤 영 대*

<차 례>

- | | |
|------------------------|---------------------------------|
| I. 서 론 | IV. 주제 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의 모색 |
| II. 도서관학 교육제도의 변천과정 | V. 결 론 |
| III. 도서관학 교육과 정보과학의 문제 | |

I. 서 론

우리나라에 현대 도서관학 교육이 시작 된것은 미국의 Peabody교육 사절단이 1956년에 내한하여 1957년에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에 도서관학과가 창설 되면서 비롯되어 불과 22년이 지난 현재 전국에 22개 대학과 8개의 전문 대학에 도서관학과 및 도서관과가 설치되어 이나라 도서관학 교육의 전성기를 마지한 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교육제도나 교과과정은 만족할만한것은 못 된다 하겠다.

도서관학 교육이 학문으로 시작되기는 학자에 따라 이론이 있지만 Karl Dziatzko에 의하여 Göttingen대학에서 1886년에 도서관학 강좌가 시작되고 그 이듬해인 1887년에 Columbia대학에 Melvil Dewey에 의하여 도서관 학교(The School of Library Economy)가 설치 되면서 시작 되었다고 볼때 1세기를 넘었다.¹⁾

그러나 다른 학문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요인에 의한 많은 변혁을 겪고있다. 즉 컴퓨터의 발달로 도서관 업무의 내용이

* 상명여자사범대학 전임강사

복잡해지고 폭이 넓어졌으며 이에 따라 새로 대두된 정보과학의 관계등에 의한 교육 내용의 변혁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변혁을 이루어 나가야 할 형편에 있다. 더우기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는 점점 가속되어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문헌정보는 한없이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도서관학 교과과정 및 교육제도도 개혁되어야 할 요인들을 안고있는 것이다.

외국의 도서관학 교육제도를 살펴보고 기존 도서관학에서의 정보과학 문제를 검토하고 시간이 갈 수록 더욱 문제가 될것으로 예측되는 주제 전문사서의 양성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제도를 검토하고 하나의 방안을 제시해 보 고저 한다.

II. 도서관학 교육의 변천과정

도서관학 교육은 그 역사가 100년 남짓하나 도서관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수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지식과 경험을 기록으로 남길수있게 되면서 도서관이란 제도가 성립이 되었을것이며 점차 지식이 증대되면서 또한 문헌의 양도증가하였으나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까지만 하여도 오늘날과 같은 문헌정보의 터람은 경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구에 필요한 문헌은 그것을 필요로하는 학자 자신이 관리하여 큰 무리가 없었을것이나 19세기 이후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량도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게되어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는다는것은 덩불속에서 바늘을 찾는것과 비유될 만큼 복잡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를 전문으로 관리 할 직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도서관학 교육이 제도화 될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비추어 볼때 도서관학 교육의 목적은 도서관이란 시설을 중심으로 생산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필요로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 시킬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론과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교육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론이나 방법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 개발이 되었다면 지체없이 받아 들여져야 할 것이며,

기존의 이론과 방법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회에 적응할수 없다면 새로운 이론과 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교과과정이나 교육제도도 필요에 의하여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것이다.

피터 하버드 윌리엄즈 교수가 말 하였듯이 “어느 정보·도서관 학과나 그대로 받아서 쓸수있는 일반적인 교과과정은 없다. 그 학과의 시대적, 지리적 배경, 사회적 전통, 발전 수준, 교육제도등 여러가지 여건과 요인을 감안하여 적합한 것을 그때 그때 작성 또는 개정 하여야 하는것이 교과과정이다.”²⁾ 라고 한 말은 참으로 적합한 지론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정보의 내용과 형태 면에서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하여 지고있다. 따라서 정보를 관리하는 사서직 교육도 보다 전문화하여야 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도서관학 교육의 변천 과정을 통하여 특히 주제 전문사서의 양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주제 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를 모색해 보고저 한다.

1) 미 국

미국의 도서관학의 발달 과정을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그중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Wilson(1949)

- ① 1887년 : Dewey가 Columbia 대학에 도서관학교를 설립함.
- ② 1915년 : 미국 도서관학교 협회 창설.
- ③ 1923년 : Williamson보고서의 출판.
- ④ 1923년 : 미국 도서관 협회에 도서관학 교육위원회의 구성
- ⑤ 1925년 : Carnegie재단의 도서관 활동 10개년 계획.
- ⑥ 1928년 : Chicago대학에 대학원 과정 도서관 학교의 설립.

Leigh(1954)

- ① Dewey시대 이전.
- ② Dewey부터 Williamson시대까지.
- ③ Williamson시대부터 1948년까지.

Churchill(1966)

- ① 1887년 이전 도제교육 시대.
- ② Dewey가 최초의 도서관 학교 설립으로부터 세계 1차 대전 종말까지.
- ③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

이 외에도 Berelson(1949), Downs(1968), Osborn(1971), Reed(1971), Carroll(1975), White(1976)등 많은 사람들이 각각 도서관학의 발전의 전환기를 구분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Wilson, Berelson, Downo, Osborn, White등은 공통적으로 미국에 있어 도서관학 교육이 대학원 과정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시기를 도서관학 변천 과정의 커다란 전환점으로 보고있다.³⁾

1887년 이전에는 도서관인들은 그들의 업무기술을 직장내에서 훈련 받는 이른바 도제 교육이었다. 그해에 Dewey가 Columbia대학 도서관에 최초의 도서관 학교를 설립하였고 1889년에 이 학교는 폐교되고 Albany의 주립 도서관 내에 다른 도서관 학교를 설립 하였다. 뒤 이어 여러 도서관 학교가 개설 되었으며 이들은 현직 도서관인들이나 Dewey로부터 6개월 내지 1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창설된것이다.⁴⁾ 당시의 교수진은 박봉이었고 따라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별로 없는 상태이었고 기술 교육에 치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서관 학교들은 공공도서관에 부설되어 있었다.

그후 Williamson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여기에서 그는 도서관학이 기술교육에서 탈피하고 좀더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공도서관에 부설되어 있는 모든 도서관 학교는 대학원 과정에 설치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 보고서는 도서관학이 학문적으로 발달 할수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매우 중요시 하고 있으며 도서관계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고 1923년 미국 도서관 협회의 도서관학 교육 위원회가 설치되고 1925년에 도서관 학교의 최저기준을 작성함에 이 보고서가 기본이 되었다. 1928년에는 Chicago대학에 대학원 과정의 도서관 학교가 창설되었다. 이 이후 미국에서는 도서관학 교육은 대학원에서 실시함이 원칙으로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말 할것도 없이 사회의 발달에 따라 적응하기 위하여는 도서관에 있어서 주제 전문사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학부 과정을 거쳐 주제 전문배경을 갖고 대학원에서 도서관학 교육을 실시 함이 요구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학부 과정을 거쳐 대학원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좀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학이나 법률도서관 분야는 주제별 중에서도 특히 이들 분야의 교과과정을 설치하여 교육하고 있다.

미국 도서관 학교 협회 총람(1979)에 의하면 협회의 공인을 받은 64개 학교중 48개 학교에서 의학 주제에 대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그 교과목은 의학도서관 운영론, 의학자료 선정 및 구입, 의학서지, 의학 특수문헌 및 자료 등이다.⁵⁾

2) 일 본

일본에서도 초기에는 도제식 교육과 단기 강습회에 의하여 도서관인을 양성하였으나 1929년에 제국도서관 내에 1년 과정의 우에노(上野)도서관 학교가 설립 되었다. 이의 입학자격은 중, 고등학교 졸업자로 현직 도서관인으로 하였다. 그후 여러 번천 과정을 거쳐 1960년 단기 대학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학에서의 도서관학 교육은 1918년에 동경대학 국문과에 도서관학을 개설하여 1922년 까지 강의 되었고 1947년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의 학부 과정에 도서관 학과가 설치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⁶⁾ 최근까지도 일본의 도서관학 교육은 게이오대학 1개교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단기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최근에는 4년제 대학에 도서관학 강좌를 개설하여 소정의 도서관학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소정의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교사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와 같은 것이다. 특이한것은 문부성의 성령으로 규정된 교과목과 학점 수는 단기 대학과 4년제 대학이 모두 같이 적용되고 있다.

1978년의 통계에 의하면 대학에 70개처, 단기 대학에 67개처에서 도서관

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부전공으로 도서관학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일본에서의 이 제도는 미국과 같이 대학원에서의 교육제도는 아니나 주제 전공 분야를 따로 가지고 도서관학을 이수 할수 있다는 것은 주제 전문사서의 양성에 공헌 할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겠다. 몇년 전만 하여도 게이오 대학 1개교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단기 대학에서 도서관학 교육을 실시하였던 시절에 비하면 상당한 발전이라 말할수 있겠다.

일본 도서관학계에서는 “대학에 있어서 도서관학의 개선”이란 명제의 시안을 작성하여 정부의 도서관 정책에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 내용은 대학원 교육이 아니고는 이상적인 사서교육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⁸⁾ 일본도 역시 정보의 질적, 양적 증가와 전문화에 적응하기 위하여는 주제 전문사서의 양성은 불가피 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대학원 과정으로 교육제도를 고치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아진다.

3) 한 국

우리나라의 도서관학 교육은 일제치하의 단기 강습이 있었으며 해방후 국립도서관에 조선 도서관 학교가 1946년에 이재욱, 박봉석선생에 의하여 개설되었다. 이는 1년 과정으로 1950년까지 5회에 걸쳐 77명을 배출하고 6·25 동란으로 폐교 되었다.⁹⁾

1955년에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양학부에 3,4학년울 대상으로 선택과목으로 12학점을 이수시키도록 도서관학 과목이 개설되었다가 1959년 정식으로 도서관학과가 개설되어 이 제도는 폐지 되었다.¹⁰⁾

전술한 바와 같이 1957년에 미국의 Peabody교육 사절단이 내한하여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에 우리나라 최초의 도서관학과가 설치되므로서 미국식 도서관학이 도입 되었다.

원래 대학원 과정에 도서관학교를 개설함이 타당하나 당시 교육받은 사서를 대량으로 배출 시켜야 할 형편으로 잠정적으로 학부에 도서관학과를 설치하였다고 하며 이것이 오늘 까지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1957년 연세대학교에 뒤 이어 1959년에 이화여자대학교에, 1963년에는 중

양대학교에, 1965년에 성균관대학교에 도서관 학과가 개설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전국에 대학에 22개처 전문대학에 8개처로 대폭 증가되었다.

이외에 연세대학교에 도서관학당이 개설되어 입학자격은 현직 도서관인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로 하였으며 1년 과정이었다. 이 과정을 고급 사서과정이라 하였고 주제 전문사서의 배출시기로 보는 사람도 있다. 이 도서관학당은 1971년에 폐교되었다.

대학원으로는 석사과정이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북대학교에 설치되어있고 박사과정은 연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석사과정에는 도서관학과 외의 타 학과 출신에게도 입학자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제 전문사서가 배출될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하겠으나 주제 전문사서의 양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주제 전문사서의 양성이 전연 이루어 지고있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방 이후 대학인구와 연구 인력이 상당히 증대 되었고 지식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도 계속 증대 될것이며 외국으로 부터의 문헌수입양도 해마다 증가하고 국내의 문헌 생산량도 점점 증가 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제 전문사서의 양성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도서관학 교육을 대학원 과정으로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가능한 방법을 연구하여 도서관학 교육제도의 개혁은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1957년 현대식 도서관학이 도입되어 25년의 교육연륜이 지났으나 교과목에 정보과학의 몇과목이 추가된 외에 별다른 변화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Ⅲ. 도서관학 교육에 있어 정보과학의 문제

1960년대에 새로 대두된 정보과학이 도서관학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있다.

정보과학은 Computer를 이용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되면서 발생된 이후 정보과학 자체로 독립 할것이나 도서관학에 병합 할것이나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정보과학이 도서관인이 아닌 쪽에서 개척이 되어 파생되는 문제라 생각된다.

도서관학이나 정보과학은 모두가 인류의 지식정보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조직하고 검색하여 이용이 될 때까지의 모든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공통된 목적이다. 그렇다면 도서관학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 즉 모든 학문의 발전과 심화등에 의하여 문헌정보의 대량 생산으로 기존의 방법으로 그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하기 어렵게 되어 정보를 처리하는 새로운 수단으로서 Computer를 채용하게 된것이고 점점 복잡해지는 정보를 운영함에 있어 기존의 이론과 수단 보다도 한층 발전된 이론적 연구방법이 필요할 시기에 도서관학의 새로운 방법과 이론으로서 정보과학이 개발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정보과학이 도서관학자에 의하여 시작이 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누가 개척하였든 간에 도서관학에 속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이 개발 되었다면 도서관학의 새로운 이론으로 받아 들여 기존 도서관학에 융합하여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것이라 생각된다.

도서관학 자체가 원래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 분석하여 조직하고 이용되는 모든 과정 즉 정보 자체와 정보의 유통과정(Communciation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정보과학은 전연 새로운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도서관학에서 어디까지가 서지학이고 어디까지가 정보과학인가라고 구분 지으려면 그것은 불가능 한 것이다. 도서관학이 원래가 서지학이요 정보과학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는 경영학적 요소가 다소 추가되어 있는것 뿐이다. 그렇다 하면 도서관학은 서지학과 정보과학과 경영학이 복합적으로 융합된 학문이라 볼수 있겠다. 경영학 분야에 가까운 교과목은 도서관 운영론을 들수 있겠으나 도서관 운영에 있어 Computer화 하는 부분은 정보과학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서지학 분야라 할수 있는 과목으로는 주제별 서지, 참고 봉사론, 자료조직론 등을 들수 있겠으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서지학 자체는 정보의 속성과 행태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조직하는 정보과학인 것이다. 또한 참고봉사론은 서지학 지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유통을 가능케하는 방법을 교수하는 과목으로 서지학의 일 분야이며 동시에 정보과학이다. 그리고 자료조직론(분

류, 편목)도 역시 목록학으로 원래 서지학이며 정보과학의 입장에서 볼때 정보를 이용이 가능하도록 가공하는 과정으로 정보과학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과목이 융합되어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보의 행태나 속성을 연구하는 정보과학의 이론도 새로운 것이 아니며 도서관학에서도 자료의 선정을 위하여 그리고 효과적인 장서구성과 효과적인 자료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분야였던 것이다. 다만 용어와 표현이 다를 뿐 모두가 기존 도서관학에 포함되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다. 이외에 정보의 분석, 조직등과 System분석도 모두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기존 도서관학과 정보과학은 용어와 표현이 다르고 연구 방법의 차이 외에는 하등 별개의 학문이라 볼 수가 없다.

그렇다고 정보과학을 배척만 할 것이 아니고 새롭고 유용한 이론이라면 도서관학의 새로운 이론으로서 받아들여 소화하여 도서관학의 이론을 재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도서관학과 서지학과 정보과학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도 없고 분립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이론이요 방법인 정보과학의 이론들을 따로 몇과목을 개설할 것이 아니라 기존 학과목에 융합시켜 교과과정도 개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도서관 운영론에서 도서관의 자동화 이론을 포함하고 참고 봉사 이론에서는 기계 검색에 의한 정보 봉사를 포함하며 주제별 서지에서는 Data Base들을 포함하고 자료 조직론에서는 MARC와 Thesaurus, 초록과 색인 작성법을 포함 하도록 하고 이론적 연구 방법론들은 도서관 연구방법론에 포함시키는 안을 생각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도서관 자동화 이론에서는 Computer를 어느 부문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교육하고 Computer공학부문까지 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도서관 업무에 Computer가 채택이 되면 Computer Science를 전공한 사람이 Computer는 운영하는 것이다. 전자 복사기의 발달로 도서관 업무에 커다란 도움을 받고 있다 하여 전자공학까지 도서관학에 포함 할 수 없는것과 같은 이치이다. 더우기 인

문·사회학 전공자에게 Computer에 관한 이론을 너무 깊게 교육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된다.

그리고 정보과학을 Computer를 이용한 정보 처리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Computer는 정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Ⅳ. 주제 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교육 제도의 묘색

도서관학 교육의 목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도서관이란 시설을 중심으로 정보자료를 수집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용시키는 모든 과정을 연구하고 교육 함이 최종 목표라할 수 있다.

도서관학 교육제도의 변천과정에서 살펴 보았듯이 이 최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는 주제 전문사서의 양성 제도로 귀착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건이 대학원 과정으로 도서관학 교육을 끌어 올릴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부전공으로 도서관학을 이수시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주제 전문사서의 양성에 보다 한발 접근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전공으로 도서관학을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준사서 자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도서관학을 부전공으로 택하는 학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서관학을 부전공으로 이수한 사람은 그의 주전공 분야의 문헌을 다루는 데에는 도서관학과 출신 보다도 유리한 점이 있겠으나 전문대학 출신과 같이 준사서 자격을 부여 하는것은 모순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도서관학이 독립된 과학으로 정립되어 있고 독립된 학과가 존재하는 한 부전공으로 도서관학을 이수시켜 도서관학과 출신과 대등한 자격을 인정함도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경우 70여개 대학에서 도서관학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하고 있고 4년제 대학 도서관학과 가 병행되어 시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자기의 전공주제를 가지고 도서관학을 이수한 사서가 도서관학 만을 전공한 사서 보다 유

리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본다면 도서관학과의 존재 가치가 모호해질 것이다.

학부과정에서 도서관학 교육이 실시 되는한 도서관학 이외의 한가지의 전공주제를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길 밖에는 없을 것 같다.

앞으로 도서관 업무가 기계화 되고 특히 인쇄 카드의 제도가 실현이 되면 현재의 도서관학 교육의 내용상 사서적이 무용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대두될 가능성이 많을것 같다. 이는 우리나라 사서의 위치가 자료의 분류, 편목하는 직종 정도로 인식 되어 있으며, 현대의 도서관 업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참고업무라고 교육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졸업후 참고봉사를 제대로 할수 있게 교육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제 배경이 없이 참고봉사나 또는 정보봉사의 방법론적 이론만을 교육받아 전문적인 참고봉사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주제별 서지등의 교육이 실시 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미흡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학도서관에서나 겨우 명맥을 유지한다고 할수 있는 참고사서 제도가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신뢰를 받고 있는가 하면 거의 부정적이다. 특히 전문 연구자나 학자에 대한 정보봉사 면에서는 거의 참고사서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말할것도 없이 주제적 학문 배경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도서관학과 쪽에서 부전공제를 활용하여 하나의 주제 배경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가능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의학도서관의 경우 도서관학과를 졸업하고 부임하여 즉시 업무에 종사 할수가 없다. 의학도서 분류표(National Library of Medicine Classification)를 사용한다든가 특히 MeSH나 Index Medicus를 이용한 문헌 검색 업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의학도서관에서는 의학의 학문배경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최소한 의학 용어학(Medical Terminology)이라도 이수하여야 의학도서관에서 적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학도서관 협의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의학 용어학 강습회를 의학도서관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구자영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주제 전문사서의 양성 방안으로서 “현행 교과과정 중에서 특수도서관 연구와 계열별 문헌 연구분야들과 같이 주제전문

정보봉사를 주축으로 할 수 있는 과목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이차적 관련성을 가진 다른 과목들의 접근 방법을 필요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임시적이거나 우선적 대책을 세울 수 있다.”¹¹⁾라고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주제 전문 봉사를 주축으로 할 수 있는 과목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한다.”함은 주제별 서지나 관종별 도서관 운영론 등을 세분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것을 깊이있게 교육한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각학과의 도서관학과 마다 특정의 주제를 채택하여 보다 전문으로 교육하는 제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수 많은 각종 주제에 관한 깊이 있는 교육을 한학과에서 한정된 시간에 전부 교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자영 교수의 제안과 부전공 제도에 의한 특정 전문적 교육방법을 같이하여 실시한다면 주제 전문사서의 양성 방안으로 가능한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도서관학과 마다 특정의 주제를 택하여 중점 교육을 한다. (의학분야, 농학분야, 법률분야등)
- 2) 부전공 학점 이수는 그 도서관학과가 택한 주제 분야의 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
- 3)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과의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
- 4) 주제별 서지 및 관종별 운영론 등은 그 학과가 전문으로 택한 주제분야를 중점으로 교육한다.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입학 요강에서 부터 그 대학 도서관학과와 전문주제를 알고 입학 한다면 편중된 교과과정이라 하여 불평도 없을것이다.

대학원 진학의 문제는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과로 입학 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립이 되면 주제 전문사서의 계속 교육으로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과학·기술 분야의 주제 전문사서로서 특히 유용 할것이며 자질있는 주제 전문사서로서 발전해 나갈수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될때 사서직의 전문성이 인정 될것이다. 또한 이렇게 양성된 주제 전문사서에 의한 봉사를 받아 보면 사회에서도 사서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도서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질것이며 이용도 증대 될것이다. 도서관의 중

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홍보나 계몽으로만 이루어 지지 않는다. 도서관 자체가 봉사의 질을 높일때에 가능해 지는것이다.

이상의 방안을 의학도서관 분야를 특정 주제로 택한 도서관 학과의 경우를 예로하여 그 실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보기로 한다.

1) 채택된 특정 주제에 대한 교과목의 보강

의학울 특정 주제로 택한 도서관학과에서는 특수도서관 운영론에서 의학도서관 운영론을 중점으로 교육하고 주제별 서지 중에서 자연과학 서지에서 의학서지를 중점으로 교육하든가 학점 배정상 가능하다면 의학서지를 추가 개설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자료조직론에서는 의학도서 분류표와 MeSH 이용법을 교수하고 참고봉사론에서는 Index Medicus, Excerpta Medica등을 이용한 문헌검색 방법을 교육한다.

2) 주제 배경으로서의 부전공

의학도서관 분야를 전문으로 택한 도서관학과에서는 주제배경학문은 당연히 의학이다. 이 경우에는 의학에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공중보건학, 정신의학, 임상병리학 그리고 의학 용어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면 충분하다. 이런 과목은 간호학과에서 부전공으로 이수하게 한다. 의학과와 강의는 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인문·사회학과 학생으로는 공부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의학도서관 분야를 전문으로 할 학과는 의학과나 간호학과가 있는 종합대학의 도서관학과에서 실시 함이 좋겠다.

3) 의무기록학의 병설

의무기록실은 특수도서관의 일종임에도 현재까지 도서관계와는 무관한 상태에 있다. 외국에는 대학에 의무기록학과가 별도로 설치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현재 정규 양성과정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의학도서관 분야를 전문으로하는 도서관학과가 생긴다면 의무기록사서와 의학사서를 동시에 배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교육 방법이 될것이며 사서의 취업분야도 넓어질 수 있겠다.

외국의 의무기록학과의 교과과정을 보면 고유한 의무기록 전공과목은 의무기록 관리학 1과목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배경 학문인 의학을 이수 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의학은 의학사자에게도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며 기존 도서관학 교과목에 의무기록학 1과목만 추가하면 의학사와 의무기록사서를 동시에 교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¹²⁾

미국의 Minnesota주의 예로서 주내 137개 병원중 70%가 의무기록 사서에 의하여 의학도서관 봉사까지 맡기고 있는 실정으로 의무기록 사서들에게 도서관학 강습을 실시하였고 1976년부터는 St. Scholastica대학의 의무기록학과는 보건정보학과(Dept. Health Information Administration)으로 개명하고 도서관학을 병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¹³⁾ 여기에서 의무기록 사서에게 의학도서관 봉사까지 맡기고 있는것은 어떤면에서 의학 주제 배경을 가진 의무기록 사서가 도서관학 만을 전공한 사서보다도 의학도서관 봉사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외국뿐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의무기록실과 도서관이 병합되어 있는 기관이 많다.

St. Scholastica대학은 4년제의 학부과정이지만 의학주제 학문배경을 충분히 이수 하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의 주제전문사서에 못지 않는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상에서 기술한 방안을 채택하여 교육한다면 주제 전문사서의 양성도 해결 될뿐 아니라 그 자질 또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이상에서 도서관학 교육의 변천과정과 현황 그리고 정보과학과 도서관학의 관계를 살펴 보았고 도서관학에서 정보과학을 어떻게 소화 흡수할 것인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여 보았다. 그리고 정보의 양적, 질적 팽대를 이루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점점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될 주제 전문사서의 양성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도서관 업무의 기계화와 인쇄카드의 실현이 이루어지면 현재의 도서관학 교육은 시련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사서들은 무용한 존재로 인식될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사서가 분류, 편목만 하여도 전문직 대우는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존재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안이 실현되기 위하여는 몇가지 문제의 해결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는 부전공의 선택에 있어 계열별에 관계 없이 개방되어야 하며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과의 석사과정 입학이 허용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문사서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준사서, 정사서 위에 전문사서를 신설한 의도는 주제 전문사서를 뜻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본래의 의미는 흐려지고 고급사서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당초에 전문사서를 신설하려 한 의도는 정사서 이상의 고도의 학문적 배경을 들어 사회에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착상으로 대학에서는 교수 대우를 받게하고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원의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사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근무성적이나 공과에 관계없이 정사서로서 몇년의 세월만 흐르면 전문사서가 될 수 있게 한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전문사서가 되기 위하여는 대학원 진학을 하고 꾸준히 연구하는 직종으로 인정이 되어야 사회에서도 전문성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법 개정안 전문사서는 주제 전문사서라는 의미로 확정하고 그 대상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정사서로 하며 이상의 방안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졸업시에는 정사서자격을 주고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후에 전문사서자격을 부여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개혁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는 법이지만 늦기전에 학계의 중지를 모아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헛셀 A., 西洋圖書館史, 李春熙譯, 韓國圖書館協會. p.113, 1968.
2. 도서관학회, 圖書館學 教科課程 改革을 위한 세미나 進行記錄, 圖書館學, 6卷, p.4, 1979.
3. Houser L. & Schrader Alvin M., The Search for a Scientific Profession, The Scarecrow Press, Inc. pp.7-8, 1978.
4. Ibid., p.27.

5. Roper, Fred W., "Library School Education of Medical Librarianship," Bull. Med. Libr. Assoc., 67 (4): 359-364, 1979.
6. 上田 格, "圖書館員 養成制度のあり方", 圖書館界, 21(6) p.209, 1970.
7. 文部省, 1980年統計資料, 日本 文部省編, 東京, 1980.
8. 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員の専門性とは何か, 日本圖書館協會, p.100, 1976.
9. 孟澤泳, "韓國 圖書館 教育制度의 研究", 청주교육대학 논문집, 제 6집, p. 178, 1970.
10. 李鳳順, "韓國의 圖書館教育", 國會圖書館報, 2(2): 15, 1965.
11. 구자영, "주제 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교육", 圖書館學 6집 p.47, 1979.
12. 尹泳大, 醫務記錄司庫의 養成制度에 관한 研究, 延世大學校 大學院 圖書館學 碩士學位 論文, 1982.
13. Haycock, L.A. & Carrol D.J., "Medical Record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The Rural Hospital Library", Bull. Med. Libr. Assoc., 66(1): 61~63, 1978.

A Study for Reform of the Educational System of Library Science in Korea: on a Scheme to Educate the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

Yung Dai Yoon*

Abstract

The education of the modern library science began in 1957 in Korea. It has been greatly developing for 25 years.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 of library science.

One of these is the training of the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 and another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al library science and information science.

Because the education of library science is carried out at undergraduate level in Korea, it led to the lack of the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 in all libraries.

In this pap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brary science and the information science was examined and a scheme to educate the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 was suggested.

* Assistant Professor, Sangmyung Women's Teachers College.